

Open Doors

2018. 7. Vol. 195

박해와 선교현장

멕시코 *Mexico*

Yellow ID

TALK

@opendoors를 검색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여 친구추가하세요.



Open 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 (2)

브라더 앤드루(오픈도어 설립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기꺼이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신다. 어떤 사람은 기도문이 양털을 놓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인에 재확인을 요구한 것이 죄라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문이 구한 대로 정확히 응답해 주셨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해서 이러한 것을 구하는 데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특정한 뜻을 확인해 주시기를 구할 때, 우리에게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할 의사가 있는지 확실히 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이다. 만약 우리가 확인을 구한다고 하면서 실은 일을 미루려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는 일관성이 없는 행위이다. 만약 확신이 없다는 핑계로 앞서 말했던 남자처럼 죄를 지으려 한다면, 우리는 큰 문제에 빠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며 그 뜻을 행할 때 비로써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인도하실 것이다.

“만일 그것이 당신의 뜻이라면...”이라는 기도는 결코 하지 말라. 이와 같은 기도는 효력이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기도가 성경적 모범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하나님께 모욕이 되는 것이다!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듣기 싫다! 너는 내 뜻을 알 만큼 나를 알지 못한다 말이나? 네가 나를 모른다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전부터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앞뒤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한 구절만을 따서 그리스도인의 운명론에 편리하게 들어맞는 교리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그 구절은 야고보가 사업 전략 단계에서 성공을 뽑내는 사람을 책망한 내용의 일부이다.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하여 요컨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희가 내년까지 살아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다. 그런데 너희가 앞으로 얼마나 더 부요해질 것인가에 대하

여 자랑하느냐? 너희는 ‘주님의 뜻이라면, 내년에 우리가 이것 또는 저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야 한다”(약 4:15). 이런 사람들은 분명 솔로몬의 말씀을 잊은 것이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잠 27:1). 야고보는 두 가지 이유로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다. 하나는, 알 수 없는 것에 대해 자랑하는 그들의 교만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는 그들의 오만함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라거나 성공하라고 하신 적이 전혀 없으며, 실제로 그분이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의 일시적인 즐거움과 보화를 추구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이다. 이 사업가들이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었더라면, 다른 태도를 가졌을 것이다. 자기들의 어리석은 계획을 교만하게 자랑하는 대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실패하기를 바라신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과 녹으로 못 쓰게 되는 것을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라고 사시는 것뿐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또 다른 기도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적용하는 한 가지 분명한 길이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취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엡 3:8-9).

CONTENTS



04



06



14



16



18

04 북한 선교 현장_나의 출애굽기 II

06 박해와 선교 현장 멕시코-Mexico

14 2018년 어린이 박해 지도 신청해주세요.

16 오픈도어 사역

청소년 어린이: 알제리(Algeria)

18 오픈도어 뉴스

박해뉴스: 콜롬비아(Colombia)

20 북한 사역자 모집

21 오픈도어 박해 퍼즐

22 오픈도어 지역 모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3 2018, 시리아에 희망을

OpenDoors 2018년 7월호 | 통권 195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_김명재, 김영복 목사

이사회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박종배, 최홍규, 김성곤,

박윤환, 오정호, 이동현, 배춘섭, 양성찬, 김윤태 목사

사무총장_이종만 목사

정보/행정/재정_정규일, 오현정 간사

북한선교_제나, 이다니엘, 조이, 루나 간사

발행처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596-3171 / 070-7522-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_정규일 목사

〈 후원 계좌 〉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701-884976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201-884969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772002-04-066312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오픈도어선교회: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나의 출애굽기 II

드보라



나는 한국에 왔을 때 '가족 중에서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남한에 와서 사는구나, 집에서 파돌림 왕따 차별 받았는데 내가 드리어 쓰임 받는구나'라고 생각했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특히 요셉 이야기에 감정이입을 많이 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지만 결국에는 크게 되고 쓰임 받았던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가족들에게 사랑 받지 못했던 나를 요셉과 같이 이끄신다고 믿었다. 그렇지만 모임에서 목사님이 보여주신 책 사진을 볼 때 하나님은 나를 깨우

쳐 주셨다. 바로 외할아버지의 기도와 헌신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했고, 이 땅에 오게 했고, 통일의 비전을 꿈꾸게 했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자는 중에 꿈인지 환상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중에 생생한 장면 하나를 보았다. 김일성 초상화를 바닥에 얹어놓고 무릎 꿇고 엎드려 예배하는 외할아버지의 모습이였다. 그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여 나는 벌떡 잠에서 깨었다. 내 눈에서는 눈물이 실 새 없이 터져 나왔다. 나는 내가 사랑



받지 못한 사람인줄 알았는데,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던 요셉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나중에 가족을 구원할 믿음의 첫 사람인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껍박 속에서도 기도하셨던 할아버지의 기도가 나를 살게 했던 것이다. 나야말로 외할아버지의 눈물의 기도의 열매였고, 정말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였다. 사실 전혀 사랑 받을 자격 없었던 내가, 어릴 적부터 질투와 욕심, 짜증만 부리던 자였던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감동에 나는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고난 중에 가족에게도 나누지 못한 채로 그렇지만 믿음을 지키신 외할아버지를 생각하며 눈물로 고향을 위해 기도했다. 내 안에 남아있던 쓴 뿌리들이 그 눈물 속에 씻겨져 나갔다.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는 그러한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 당시 북한은 그래도 경제 사정이 괜찮았다. 어릴 적만 해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김일성 수령을 신으로 받드는 북한의 교육과 사상통제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아니 하나님을 모욕하며 살았다. 나도 역시 김일성 수령을 민족의 어버이요 신과 같은 존재로 믿고 그렇게 살아왔다. 외할아버지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는지 전혀 모른 채, 사람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은 꿈에도 알지 못한 채 나는 여전히 가족들은 날 미워한다 생각하며 심술을 부리면서 그렇게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갔다. 집과 학교의 이중생활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항상 집에서는 말쑥꾸러기, 천덕꾸러기였지만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상당히 성실한 학생이였다. 그 당시 학교에서는 외국어로 2개반을 운영했다.

러시아어 반과 영어 반이었는데 나는 영어 반을 선택했었다. 그 당시에는 영어가 우리가 그토록 증오하는 미제가 사용하는 언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그저 영국에서 쓰는 언어라고만 알고 있었다. 배웠던 영어 발음도 영국식이었다. 내가 다니던 중학교는 6학년 졸업이 2년 남은 4학년때부터 시험을 보고 경연을 해서 뛰어난 학생들을 추렸다. 그리고는 그 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공부를 시켰다. 북한의 학교가 여기서 말하는 비평준화 같은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학교 체면이 중요하다 보니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려고 했다. 내가 있던 학교는 한 학년에 약 2-300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1반 정도를 수재 반으로 따로 구분을 시켰다. 나는 평소 좋은 학업 성적 덕분에 그 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집에서는 내가 공부하고 또 대학가는 것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으셨다. 아버지의 머리 속에 여자 대학생들은 '집안 살림은 안하고 입만 여물어서 남자를 깔보는' 그런 사람이였다. 아버지가 러시아에서 돌아오신 뒤에 배치 받은 직장은 외부 출장이 잦았는데, 출장 다니시면서 여자 대학생들을 이리저리 지나칠 기회들이 많으셨다고 한다. 그렇게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 아버지 세대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심했다. 아버지는 그래서 공부에 대해 부정적이셨고 집에서 생활 살림이나 잘하라고 하셨다. 집에서 공부를 못하게 해서 나는 숙제도 학교에서 다 해야 귀가할 수 있었다. (다음 호에 계속)



멕시코 *Mexico*

—종교: 로마가톨릭(89%), 개신교(6%)
—인구: 132,000,000명
—박해정도: 심함
—수도: 멕시코시티(Mexico City)
—주 박해요소: 토착민의 기독교 적대감(Ethnic antagonism), 구조적 부정부패와 범죄(Organized corruption and crime), 세속주의적 불 관용(Secular intolerance)

멕시코의 2018년 세계박해지수(World Watch List, WWL)는 지난 해보다 2점 상승한 59점39위로 집계되었다. 이는 멕시코 토착민 사회의 기독교 박해 강도와 빈도의 증가, 세속화로 인해 기독교에 대한 배척이 심화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겨진다.



멕시코의 박해상황

1. 박해원인

토착민의 기독교 적대감(Ethnic antagonism): 멕시코의 토착민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21.5%를 차지하며 주로 남부 국경 지역과 중서부 지역에 거주한다. 토착민 사회는 고유의 전통 법률과 풍습을 따르며 국가에는 거의 개입하지 않는다. 지역 사회 지도자들은 주민들에게 고대 토착 신앙과 로마 가톨릭이 혼합된 형태의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따를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부족 전통과 혼합된 신앙 형태를 거부하는 이들(대표적으로 개신교 기독교인들)은 토착민 사회의 세계관과 안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곧바로 처벌을 받게 된다. 지역 정부는 누군가 기독교(주로 개신교)로 개종하기로 결심하면 벌금형이나 격리 조치, 또는 그들의 가족들이 공공서비스를 누릴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그들이 신앙을 철회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 정도로 구타를 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이를 심각한 인권 침해가 아닌, 토착민 사회와 구성원 간의 단순한 의견 차이로 여겨 이와 같은 사건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구조적 부정부패와 범죄(Organized corruption and crime): 조직적인 부정부패와 범죄는 아마도 멕시코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일 것이다. 부패와 범죄가 늘어나면서 국가 행정의 비효율성과 불완전성도 함께

증가했다. 이런 행위가 계속해서 묵인되자 국민에 대한 보호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 범죄 조직에 의한 폭력 사건은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마약 국가'라고도 불리는 멕시코에서 기독교인들은 범죄 조직이 만들어 낸 혼란과 무정부 상태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멕시코에서 목사나 가톨릭 사제들을 포함한 기독교인들의 재산이 강탈당하는 경우는 매우 잦다. 또한 교회 모임과 기독교적인 모임, 특히 청년들에게 전도하거나 마약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마약거래상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고자 하는 활동을 중단하도록 협박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는 비단 기독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신앙을 드러낸 기독교인들 역시 인신공격이나 재산 침해를 당하고는 한다. 단지 예배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유괴될 확률이 올라가며, 젊은 기독교인들은 범죄 조직에 영입될 위험도 높다. 또한 마약조직들이 멕시코 전역에서 첨단 기술을 동원하여 교회 활동을 감시하기도 한다.

세속주의적 무관용(Secular intolerance): 페나 니에토(Peña Nieto)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멕시코 정부에게 공공정책에서 기독교적인 색채를 제거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압력(특히 유엔과 OAS)이 더욱 거세졌다. 2012년부터 자유 사상을 홍보하는 입법 및 공공정책이 장려되기 시작했다. 정작 국민들은 이에, 특히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낙태 반대) 문제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이러한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은 조롱과

비방을 받고 공공연하게 공격을 당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종교적 표현은 세속주의(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일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제한되어 있다. 세속주의가 널리 퍼져있으며 공적으로 신앙을 나타내는 행위(행렬, 종교집단에 의한 시위, 기독교 지도자들에 의한 정치적 선언문 등)에 대한 비난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기독교인이 공무원 직을 수행하는 등 정치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비판이 더욱 거세다.

토착민의 적대감을 유발하는 요인들(Drivers of Ethnic antagonism): 부족 지도자들과 토착민들의 신앙 지도자들은 공동체의 전통적인 풍습에 위배되는 종교를 토착민 집단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하고 배척한다. 그래서 일부 토속신앙 지도자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는 한다. 이로 인해 공동체 구성원들 또한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이 기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비난하고 저지한다. 이것을 토착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의무로 여겨서이기도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벌금형을 받거나 기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공식적인 정부의 부재와 토착민 자치의 개념 하에 기독교인들의 권리가 훼손되고 있다.

세속주의적 무관용의 요인들(Drivers of Secular intolerance): 멕시코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세속주의 사상은 특정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일부 집단(성소수자 집단 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 결과 정부(특히 이데올로기 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일부 정당)와 다양한 단체들의 압력 하에 이러한 세속주의 정책이 멕시코 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요소들은 모두 기독교적 가치관, 특히 결혼과 가족, 그리고 태어나지 않은 생명 보호에 관련된 기독교적 가치관을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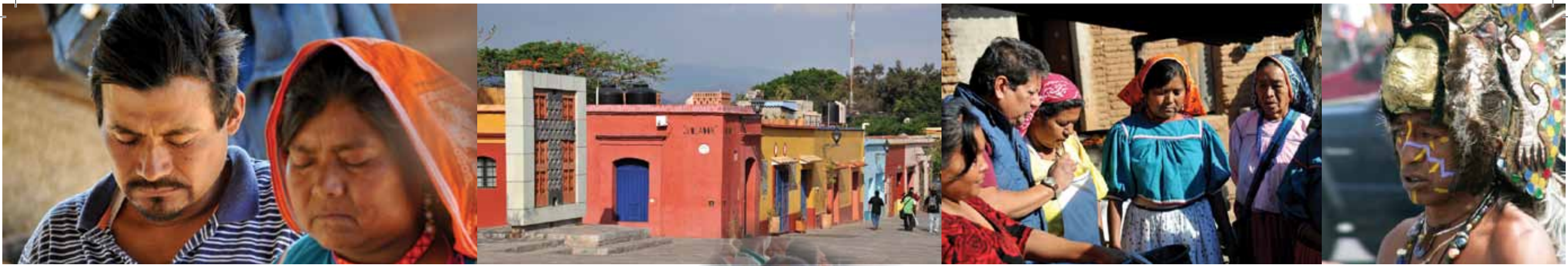
공 영역에서 제거하려 하고 있다. 멕시코 사회에서 종교적 활동은 이제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신비주의적인(뉴에이지와 같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멕시코인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 가졌던 호감이 이제는 무관심과 거부로 바뀌고 있다.

구조적 부정부패와 범죄의 요인들(Drivers of Organized corruption and crime):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범죄조직의 공격은 멕시코의 기독교 박해에서 가장 큰 폭력적 요소이다. 많은 경우 공무원들이 기독교인 학대에 직접적으로 동조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에 대한 학대와 범죄가 더욱 성행한다. 정부의 부정부패가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범죄조직을 처벌하지 않는다. 이로써 전 사회가, 심지어 기독교인들의 가족과 친척들마저 기독교 활동을 감시하거나 폭력 사태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마피아 범죄의 간접적인 공범이 되고는 한다. 일부 범죄집단은 기독교 신앙을 적대시하는 '산테리아(Santeria)'라는 사교집단과 연결되어 있다.

2. 박해배경

현대 멕시코는 정부의 권위 상실과 안보 부재, 경제 쇠락, 조직범죄 급증, 공공 서비스 부재, 그리고 정의의 부재로 인해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된 국가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은 멕시코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

2012년 엔리케 페나 니에토(Enrique Peña Nieto) 대통령이 주지사로 재임하던 초기에 제도혁명당(PRI)이 권력을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2016년과 2017년에 거행된 선거에서 보여졌듯이 이제는 정당 지지율이 현저하게 낮아졌다. 페나 니에토 정권은 국가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또 정치인 가족의 부정



부패와 돈세탁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로써 정치인과 공공 기관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게 되었고, 반면 보수 기독교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했다.

범죄조직에 의한 폭력은 (특히 마약거래가 활발한 국경 지역에서) 더욱 심각해졌다. 무력분쟁조사(Armed Conflict Survey, ACS)가 2017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는 시리아 다음으로 피살자가 많은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멕시코에서 인신 매매와 약탈, 유괴가 성행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멕시코 국민들은 이와 같은 폭력을 피하기 위해 국경에서 가능한 떨어진 국가 중심부로 옮겨가고 있다. 폭력뿐 아니라 치솟는 실업률과 빈곤율 또한 국민들이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찾아서 다른 도시로 이주하도록 내몰고 있다.

지난 몇 달간 멕시코 경제가 급락했다. 2017년 1월에는 멕시코 페소가 달러당 21.75 페소까지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활동 기간 멕시코를 대상으로 한 반무역, 반이민 공약을 내세웠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 사이에 공황상태가 발생했고 멕시코 경제가 크게 악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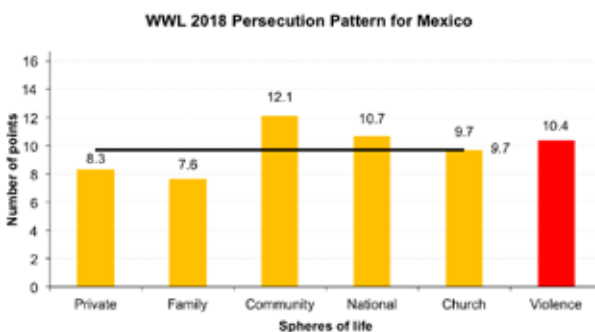
정부의 '악정(misgovernment)'으로 인해 멕시코 전 국민의 생활이 영향을 받고 있다. 사회적 빈부 격차의 증가는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의 부재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회의 순수한 구제가 부족했음을 나타냈다. 이로 인해 기독교인들이 많은 공격을 받았으나 정부는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않았다. 멕시코에서 배척되는 종교는 기독교만이 아니다. 여호와의 증인(기독교 이단)과 몰몬교(기독교 이단)에 대한 적대감도 증가했다.

3. 각 영역에서의 박해 정도와 폭력

멕시코에서 나타나고 있는 박해의 유형:

멕시코의 기독교 박해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평균 기독교 박해점수는 작년 8.4에서 올해 9.7로 증가했다. 범죄 집단, 토착민 지도자 및 공무원들이 기독교인들과 교회 전반에 가하는 다양한 유형의 박해 때문에 공동체 영역(매우 높음: 12.1), 국가 영역(높음: 10.7) 및 교회 영역(높음: 9.7)에서 매우 강하게 박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폭력 점수는 10.4로 매우 높지만 작년 평균 기독교 박해점수인 14.4에 비해서는 감소했다. 폭력의 수준과 빈도가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폭력의 유형은 달라졌다. 기독교인의 상점이나 업소에 대한 공격에 대한 보고는 거의 없었으며 (특히 토착 지역사회 내에서) 신앙 관련 이유로 감옥이나 노동 캠프 등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한 보고도 거의 없었다.



개인영역

박해로 인해 나타난 부패와 조직범죄 및 민족적 대립은 멕시코 기독교인들의 개인영역에서의 박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마약 조직과 상인연합은 사람들이 기독

교를 고수하거나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는 자신들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목표에 위배되고 위협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기독교로 개종하면 바로 가족들로부터 박해를 받으며 또한 집을 떠날 것을 요구 받게 된다. 그러한 박해는 기독교인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을 방해한다. 박해자들은 기독교 신앙이 지역 사회 구성원들에게 더 널리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형안이 되어있다.

가족영역

기독교 개종자의 결혼 또는 사망자의 신고(자녀의 경우엔 출생신고)가 지역사회 내에서 거부된 사례가 있다. 기독교 의식으로 축하 받는 세례, 결혼식 및 장례식은 공동체 당국에 의해 방해 받거나 제한되어왔다. 지역사회와 반대된 종교의 증가를 막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한 형태인 것이다. 이러한 박해 상황은 지역 사회 지도자들이 부모의 신앙을 따르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차별 당하거나 비기독교 가정에 의해 양육되기 위해 가족들과 분리될 위험이 높다. 또한 정부는 주로 공공 정책, 특히 교육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모든 정부 부처 내에서 세속적인 차별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부모가 자신의 믿음과 신념에 따라 자녀를 교육 할 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 범죄 집단에 의한 공격의 위험이 높을 때, 기독교인은 안전하게 살 다른 곳을 찾아야 하므로 범죄와 부패는 가족이 떨어지게 만든다.

공동체영역

멕시코 내 기독교인들은 기본 사회서비스인, 수도 공급, 전기, 교육 등에서 제외되고 지역 사회 생활에 참

여하지 못하거나 지역 사회 자원에 접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포기하라는 끊임없는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 이 압박은 직업 차별, 기독교인 소유 기업의 불이익, 부당한 벌금 부과, 심문 또는 지방 당국에 불법 고할 하는 형태를 띤다. 공동체 내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마약유통과 관련한 상인연합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종종 조직된 부패와 범죄와 결탁한 정부는 기독교인의 부당함을 묵인하게 된다.

국가영역

국가영역에서 박해는 각기 다른 수준에서 다른 방법으로 나타난다.

종족간 적대감: 기독교인은 해당 부족의 일원이며, 부족의 신념에 위배 될 수 있는 법률 및 지역 사회 관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조직적 부정부패와 범죄: 기독교인들은 공격받을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범죄조직의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강요 받거나 공개적으로 신앙을 나타내지 않도록 강요 받고 있다.

세속주의적 무관용: 공공 영역에서의 기독교 전도는 금지되거나 거부된다. 특히 국가의 세속주의(사회 제도나 그 운영 등에서 종교적 영향력을 제거하고자 하는 주의)적 원칙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는 모든 행위는 국가로부터 박해를 당하게 된다.

기독교인들을 향한 국가차원의 명백한 박해는 종종 평범한 종류의 압박이거나 마약관련 심심찮은 일상적인 폭력인 것으로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 기독교 박해의 위험성이 축소 되곤 한다. 또한 기독교 박해가 오직 개인의 종교적 믿음의 문제로만 간주되어 가벼운 문제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기독교 박해의 위험성이 인정 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박해 관련 이슈에 대한



이해가 낮아지고 편향되어 가해자들이 면책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

교회영역

이 영역에서 박해 원인은 각기 다른 수준에서 다른 방법으로 나타난다.

부족간 대립과 조직적 부정부패와 범죄: 교회는 주변 사회의 통제를 받는다. 교회는 청소년과 자선 단체와 연계하여 자유롭게 활동을 시도하지만, 마약관련 상인연합과 지역단체장에 의한 폭력적인 환경 아래서 안전을 보장 받기가 힘든 처지이다.

세속주의적 무관용은 특히 도심 지역에서 두드러진다. 도심지역에서의 기독교 활동은 성적 차별과 기독교 혐오 발언으로 빠르게 이어진다.

폭력

멕시코 내 폭력은 매우 큰 문제이며 특히 폭력의 빈번한 피해자가 되는 기독교인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기독교인들은 나머지 사람들과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지 쉽게 식별할 수 있다. 그래서 목사와 성직자들에 대한 폭력의 위험이 더 크다. 실제로 멕시코는 라틴 아메리카 내에서도 지역 범죄 단체에 의한 로마 가톨릭 사제들에 대한 테러와 암살로 악명 높은 곳이다. 반면에 남부 치아파스(Chiapas)에서는 지역 사회의 종교적 관행을 따르지 않는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적인 사건이 여러 건 보고되었다. 이 기독교인들은 종종 지도자들로부터 신앙을 포기하라는 압박을 받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유 없이 투옥되어 정신적 학대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 외에, 멕시코 시티 대성당과 멕시코 성공회 이 두 곳은 폭력 사건의 발발이 내재되어 있는 곳이다.

멕시코(Mexico)의 상황을 이해하는 핵심 요소들

역사적 배경

1994년 1월 1일, 사파티스타 민족 해방군(EZLN)이 연방정부를 상대로한 이주간의 게릴라 반란에 관여한 후 비폭력 반대 운동은 지속되었다. 제도혁명당(PRI)은 2000년 대통령선거에서 71년만에 야당인 국민행동당(PAN)의 비센트 폭스(Vicente Fox)에게 선거에서 패했다. 후임자인 펠리페 칼데론(Felipe Calderon) 대통령은 2006년, 마약 범죄 조직을 상대로 엄중 단속에 들어갔고 결국 수 천명에 달하는 범죄자들이 정부군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혁명당(PRI)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멕시코 주지사였던 엔리케 페나 니에토(Enrique Pena Nieto)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현대사를 살펴보면 공권력이 합법성을 잃게 되면서, 안보 결여와 침체된 경제, 조직된 범죄의 증가, 사회서비스와 정의 구현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은 사회에서 좀더 영향력 있는 역할을 맡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종교적 상황

멕시코에는 여러 종교가 공존하고 있다. 기독교는 단연코 다수 종교임에도, 다수의 토착 인구가 속한 민족종교와 무슬림, 유대 및 불교 집단도 있다. 멕시코에서는 가톨릭 신자가 대부분이지만, 세계 기독교 데이터베이스(WCD)에 의하면, 개신교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결과이다. 첫째, 기독교의 다양성 수용 및 종교간 개종에 대한 용인 증가이다. 둘째로, 기독교 세계관을 옹호하는 기독교인들

의 거대한 연맹과 태아의 생명에 대한 보호,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의 이해, 범죄 조직에 의한 폭력 반대, 마지막으로 극빈자들 사이에서 기독교 복음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공공영역에서 기독교인의 존재는 매우 제한되어 있는데 특히 정치분야에서 더욱 그렇다. 종교와 정치를 분리시키려는 노력이 있음에도, 많은 지역에서 편향적인 사고로 인해 기독교인들은 취약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그들을 상대로한 공격이 정치, 사회, 학교 그리고 범죄집단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범죄집단의 경우, 기독교 신앙 자체를 자신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신자를 대상으로 한 공격은 종종 개인적인 갈등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종교차별에 의한 폭력의 결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2016년 교황 프란치스코(Pope Francis)의 방문은 토착지역에서 사역하는 가톨릭 교회에 많은 힘을 실어 주었는데 특히 산크리스토탈데라스카사스(San Cristobal de las Casas)와 치아파스 주(Chiapas), 시우다드 화레스(Ciudad Juarez) 지역에서 그랬다.

정치적 상황

제도혁명당(PRI)은 2016년과 2017년의 선거 결과에서 확인되었듯이 점점 지지를 상실하고 있다. 엔리케 페나 니에토(Pena Nieto)대통령은 권력을 잃게 되면서 집권 여당의 정치인 가족을 포함한 부패와 돈 세탁은 물론, 나라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힘 또한 잃게 되었다. 이것은 결국 정당과 공공단체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을 이끌었고 보수적인 성향과 함께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켰다. 기독교인들의 정치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은, 무소속 입후보자 및 새로운 정당의 창시자 증가에서 확인될 수 있다. 투표권이 있

는 기독교인 인구가 중요한 정치적인 요소로 알려지면서 지난 선거에서 다양한 입후보자들은 종교자유와 기독교 가치 보호를 약속을 공약하며 표를 얻기 위해 기독교 단체와 동맹을 추구하는 상황을 야기시켰다. 하지만 기독교 지도자들이 정치 이슈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했을 때, 종종 국가의 원칙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되었다. 그리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은 조롱 당하거나 시달리고, 때로 공공분야에서 종교 확신에 대한 공격을 참아내야만 한다.

사회 경제적 상황

범죄 조직의 폭력은 특히 마약 남용이 빈번한 접경지역에서 더욱 심해지고 있다. 2017년 무력 분쟁 조사에 의하면, 멕시코는 시리아 다음으로 살인율이 높고, 인신매매와 폭행, 납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나라다. 이러한 폭력은 자국 내 국민들의 이주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인데, 그러나 이것만이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실업률과 빈곤률이 증가하면서 많은 멕시코 가족들은 좀더 나은 수준의 경제와 사회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다. 나라경제는 현재 사상 최저 수준에 다 달았다. 2017년 1월 멕시코 페소는 미국 달러로 1달러당 21.75 페소에 해당되었는데 이렇게 하락된 이유는 석유 위기는 물론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멕시코와의 무역에서 규제 강화와 미국으로의 이주에 대한 좀더 압력적인 정책을 선언한 대통령 후보자 트럼프의 당선 때문이다. 이것은 투자자들의 공포를 야기시키며 결국 국민경제의 하락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2018년 어린이 박해지도를 신청해주세요.

전화: 02)596-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필요한 사이즈와 수량을 말씀해 주세요.
국2절, A4사이즈





알제리 청소년이 기뻐한 크고 화려한 보물

이슬람이 우세한 나라에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아델(Adel)은 14세 청소년이다. 아델은 어느 날 교회에서의 그룹모임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다. 아델은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하는 이 시간을 참 좋아한다. 그런데 그 날만큼은 그룹 리더가 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그 성경책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인지 나누었는데, 이 말이 아델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다. 물론 아델이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저 아델에게는 쉽게 매 순간 읽을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이다. 이런 가운데 그룹 모임의 한 친구가 자신의 성경책을 아델에게 보여주었는데 성경책을 여는 순간부터 자신에게도 성경책이 꼭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다. 특히 아델은 멋진 그림으로 잘 표현된 성경책에 완전 매료되었다. 성경책이 만화책과 같이 잘 그려진 책이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아델은 더욱더 성경책을 갖고 싶다고 스스로 되새겼다. 아델은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 또한 친구가 갖고 있는 것 같은 만화 성경책을 갖고 싶다고 기도하였다. 성경책을 갖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기도한 다음 날, 아델은 부모님께 자신도 친구와 같은 만화 성경책이 갖고 싶다고 말했지만, 부모님은 서로 상의를 하다가 결국 아델에게 만화 성경책이 너무 비싸서 사줄 수 없다고 이야기 하였다. 아델에게는 참 실망스러운 일이었다.

아델은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 또한 친구가 갖고 있는 것 같은 만화 성경책을 갖고 싶다고 기도하였다. 성경책을 갖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기도한 다음 날, 아델은 부모님께 자신도 친구와 같은 만화 성경책이 갖고 싶다고 하였다. 부모님은 서로 상의를 하다가 결국 아델에게 만화 성경책이 너무 비싸서 사줄 수 없다고 이야기 하였다. 아델에게는 참 실망스러운 일이었다.

몇 일 뒤에 아델은 만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한 친구를 만났다. 그리고 친구에게 어디에서 만화 성경책을 샀는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친구는 웃으면서 한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만화 성경책을 받았다고 이야기 해주었다. 그리고 그 만화 성경책을 무료로 받았다는 것도 이야기 해주었다. 희소식을 들은 아델의 얼굴은 미소로 가득해졌다. 아델은 친구가 말하는 사람이 어디에 사는 지도 알았고, 그 사람에게 가기만 하면 만화 성경책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아델은 바로 그 사람에게 달려갔다. 그 사람이 사는 곳은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고,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그 사람의 작은 집의 초인종을 눌러보았다. 잠시 뒤에 40대 정도의 마른 한 사람이 문을 열어주었고, 그가 아델에게 집에 들어오라는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 사람에게 만화 성경책을 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친구를 통해 이곳에서 만화 성경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들었다고 이야기 해주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고개를 저으며 더 이상 그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줄 수 없다고 이야기 해주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아델을 집안으로 초대해서 음료수를 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하지만 아델은 깊은 실망감으로 인해 음료수를 목 넘겨 넘길 수 없었고, 늦은 저녁에 돌아온 그는 실망감으로 인해 부모님께 투정만 부렸다. 그날 저녁에는 기도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었고, 구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생각만 갖게 되었다.

다음 날 아델은 자신이 어제 밤에 잘못 생각했음을 알고, 다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아델은 집에 있는 일반 성경책을 읽기로 작정하였다. 그리고 그 성경책 중간 부분을 폈다. 그 부분은 시편 119편이었고, 말씀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였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델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면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리고 몇 일 뒤에 크리스마스 행사가 열렸다. 부모님과 아이들이 교회에 나왔고, 모임의 마지막 시간에는 행사에 참여한 청소년과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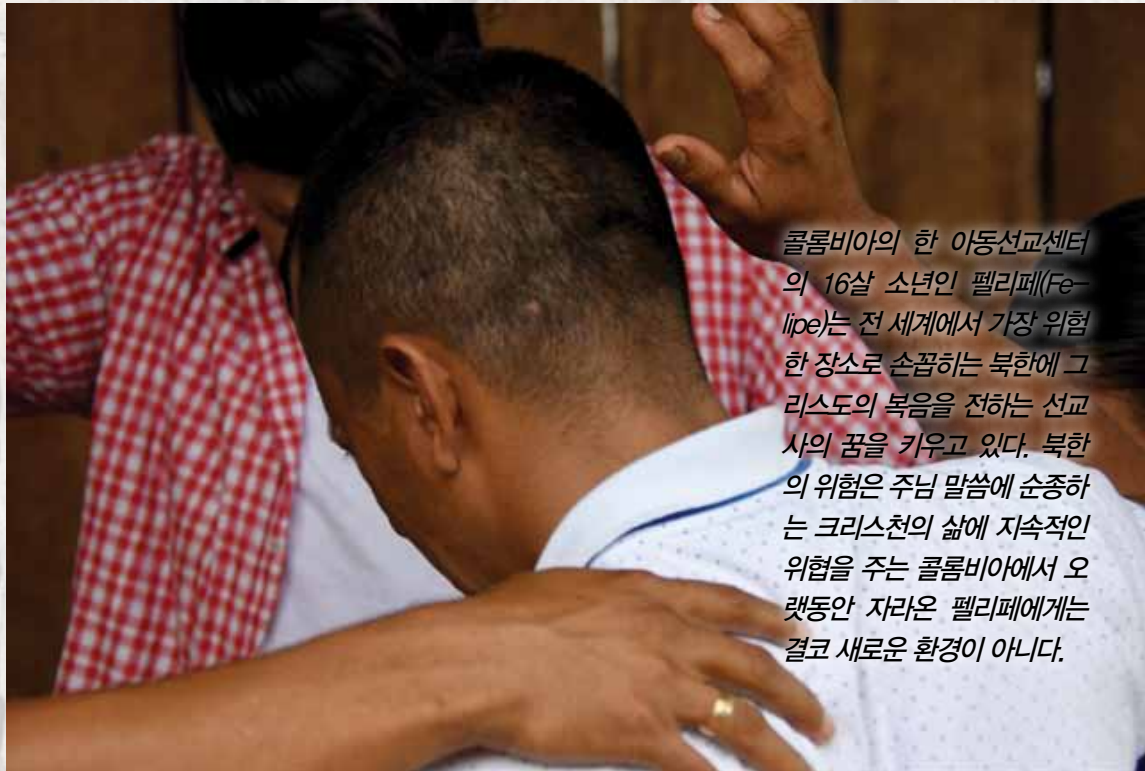
이 있었다. 아델의 이름이 A여서 선물 주는 시간에 첫 번째 사람으로 앞으로 나가게 되었다. 아델은 포장된 선물을 보았다. 겉으로 봐서 축구공 같지는 않았고 선물 크기를 보니 무게가 좀 있어 보았다. 그리고 결국 그 선물이 만화 성경책인 것을 알고 아델의 얼굴은 환하게 빛이 났다.

아델은 부모님에게 가서 오늘 이 만화 성경책을 예수님이 주셨음을 이야기 하였다. 아델은 너무도 기뻐서 넘어질 정도였다. 아델은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원했던 만화 성경책을 받아서 너무도 기쁘다고 이야기 하였다. 아델에게 있어서 성경책을 읽는다는 것은 전혀 지루한 일이 아니었다. 성경책에 담긴 수많은 멋진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아델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이야기와 포로로 있다가 거룩한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었다. 그리고 이제 아델은 만화 성경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경책도 같이 읽으면서 만화 성경책에 없는 이야기도 확인하고 있다.

아델의 이야기는 알제리에서 실제로 일어난 2017년 성탄절에 성경책 배포사역에서 나온 이야기로 특별히 이 사역의 총 책임자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큰 기여를 한, 이 사역을 후원하여준 사람들에게 큰 감사를 표했다. 특별히 만화 성경책이 알제리의 어린이들에게 멋진 선물이 되었음도 이야기 해주었다.

9살에서 16세 사이의 200명의 아이들이 성경배포사역을 통해 만화 성경책을 받았고, 만화 성경책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청소년들에게 널리 배포되고 있다. 오픈도어는 이 사역을 통해 젊은 세대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과 만화 성경책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성경이야기를 알고 나아가 일반 성경책을 읽는 단계로까지 나아가는 디딤돌이 된다고 하였다.





콜롬비아의 한 아동선교센터의 16살 소년인 펠리페(Felipe)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로 손꼽히는 북한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꿈을 키우고 있다. 북한의 위험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크리스천의 삶에 지속적인 위협을 주는 콜롬비아에서 오랫동안 자라온 펠리페에게는 결코 새로운 환경이 아니다.

“저는 북한의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펠리페와 그의 남동생 파비앙(Fabián)은 2015년 이래 오픈도어가 운영하는 아동선교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그들의 부모가 당시에 콜롬비아 남서쪽의 고향에서 급히 이사할 필요성을 느낀 이유는 폭력과 협박으로 강제 신병모집을 하고 있는 불법무장세력의 통제와 지배가 더욱 심해졌기 때문이었다. 그 게릴라 세력들은 찌든 가난과 기회의 한계 속에 갇힌 어린이들과 청소년, 젊은이들에게 돈과 권력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한다며 그들을 기만하고 있었다. “그런 불법무장세력들이 아이들을 속여 피어 데려가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강제로 폭력과 힘을 행사해서 그들에게 복종시키게 하였는데 이런 일들은 흔히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분쟁지역의 리더이자 목사인 펠리페와 파비앙의 어머니 마리나(Marina)의 증언이다.

펠리페의 이야기는 남부 콜롬비아의 뾰족한 정글 중앙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부터 시작된다. 펠리페의 아버지 안토니오(Antonio)는 오직 믿음으로 전쟁과 협박, 폭력을 대항하는 50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하는 작은 시골교회의 목사이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 안토니오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후 목사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한 이후 5년이 흘렀다. 그 지역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안토니오는 무장군인들이 운영하는 불법 마약을 재배하는 농장에서 불법 작물을 재배하는 수 천명의 소작농 중 한 명이었다. 그 당시에는 안토니오와 그의 부인 마리나는 폭력과 불법적인 행동으로 가득한 절망적인 삶을 살아야만 했다.

“나는 그 당시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나는 코카인잎을 재배했고 부인과 자녀를 가끔 때리기도 했으며 계속 술을 마시고 내 삶을 파멸로 몰고 갔습니다.” 안토니오의 고백이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는 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가장인 안토니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므로써 그 가정의 삶 또한 완전히 변화 되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살인과 추방, 협박을 일삼아온 무장세력에 반대하며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 그리스도인이 된지 5년이 지나 목사가 되어 목회를 시작할 때 즈음 안토니오 목사는 그가 겪었던 일 중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2년 동안이나 게릴라 군들에 의해 문 닫혀있던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이었다. 지속적인 무장세력의 위협과 겁에 질린 성도들을 상대하는 사역이었기에 매우 큰 부담이 되었다. 얼마 전 다른 지역에서 교회 사역을 그만두라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한 마누엘(Manuel) 목사가 그의 교회 앞에서 살해당한 사건을 보전대 게릴라들이 장악한 시골 지역인 그곳에 당시 교회를 재건하는 일은 순교나 죽음과도 같은 의미였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즈음, 불과 30킬로미터 떨어진 교회의 마누엘 목사가 게릴라들에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성도들의 두려움은 매우 컸습니다. 마을 모든 사람들은 만약 우리가 예배를 지속하면 목사인 저 또한 마누엘 목사처럼 살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는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회를 위해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만약 내가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것이 운명이라면 그분의 뜻에 따르겠다고 생각했죠.” 그때 이후로 8년 이 지난 지금 게릴라 그룹은 여전히 폭행과 협박으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지만 마리나와 안토니오 같은 교회 기독교인들과 목사들의 강한 저항으로 핍박 받는 교회들은 굳건히 살아남았고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있을 만큼 강해져 있다. 안토니오 목사의 아들 펠리페는 부모님의 믿음과 삶의 본보기, 그리고 사역들을 목격해왔다.

펠리페는 오픈도어가 운영하는 아동선교센터에서 기본적인 교육뿐 아니라 전문 목회교육까지 동시에 받고 있다. 펠리페가 북한 선교의 꿈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곳에서의 양육과 교육이 있었기 때문이다. “펠리페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임 당하는 그곳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엄마인 저로서는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 주님께서 늘 우리아들을 돌보셨듯이 항상 돌봐 주실 것 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만약 그가 북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행복하게 지원해줄 마음이 있습니다.” 펠리페의 어머니, 마리나의 고백이다.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사역자 모집(전임)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믿음 안에 굳세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사역하고 있는 한국 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북한선교에 헌신할 사역자를 구합니다.

모집인원

현장 선교사 (여성 사역부분 : 0명 / 일반 사역부분 : 0명)

- ▶ 주요업무 : 선교회에서 지정하는 현장사역을 수행 (개별 협의)
- ▶ 교회 및 노회(지방회)의 인정을 받는 선교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분
- ▶ 교육부 인가의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M. div)를 받은 분
- ▶ 중국어 가능자 우대
- ▶ 여성사역부분의 경우 여성만 지원 가능하며 독신자 우대
- ▶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열정이 있으며, 특히 북한선교에 헌신된 자
- ▶ 연령 : 45세 미만 (예외 가능)

제출서류

-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
- ▶ 추천서 2부,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증명서 사본 (면접 시 지참)

기관소개

- www.opendoors.or.kr 와 www.opendoors.org 사이트 참조
- 사역 조건 - 국내근무 : 월~금, 09:00~18:00, 4대보험적용, 급여는 개별 협의
- 선교 파견자는 선교회에서 사역비를 지원하며 구체적 내용은 개별 협의함
- 모집기한 : 구인시까지
- 문의처 : 이혜나 간사 : 010-4668-6356 / 이메일: info@opendoors.or.kr
- 서류제출 : 이메일 info@opendoors.or.kr · 우편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한국 오픈도어

전 세계 박해 받는 성도들과 함께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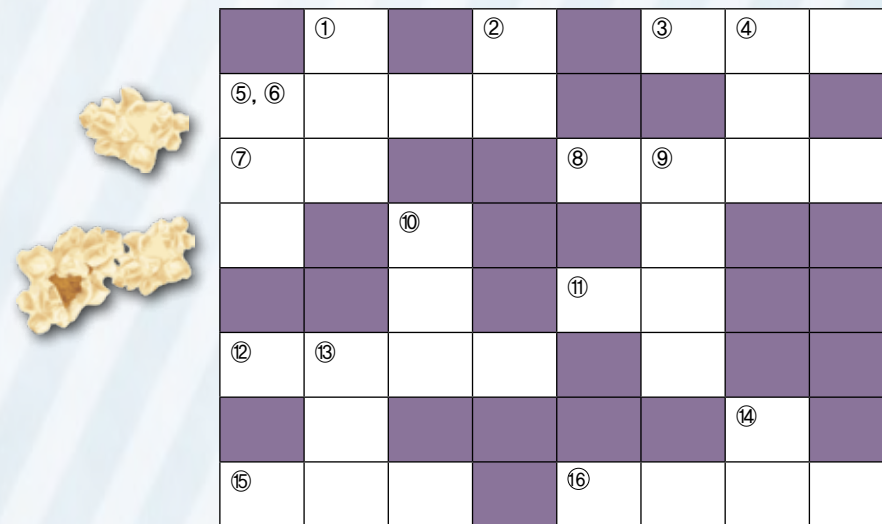
박해 순위 50개 국가의 총인구는 약 48억9천만 명,
이중 기독교 인구는 약 6억5천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기독교인들 중 33%인 약 2억1,500만 명이
신앙 때문에 높은, 또는 극단적 수준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박해와 관련한
강의나 설교를 원하시는 단체, 교회는
아래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요청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에서 상단 '오픈도어참여' 클릭
전화: 02)596-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오픈도어 박해퍼즐



가로열쇠

3.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000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 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누가복음19:12,13)
5. 원래 이름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창세기 17:5)
7. 바울이 옥중에 있었을 때에 좋은 협력자였다고 하며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한다. (골로새서 4:10)
8.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그 증거로 판 우물로 '일곱 우물' '맹세의 우물' 이라는 뜻이다. (창 21:30-31)
11. 솔로몬 왕의 소문을 듣고 그 지혜와 부와 권세의 진위를 시험하고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많은 선물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여왕이 다스렸던 땅. (열왕기상10:1)
12. 예수께로부터 '참 이스라엘 사람' 이라고 칭함 받은 자. (요한복음1:47)
15.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000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삼상 7:5)
16. 아굽이 압박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후에 새로 불려진 이름.(창세기32:28)

세로열쇠

1.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창세기24:16)
2. 길르앗사람 바실래의 아들로서 다윗 왕과 함께 요단강을 건넌 사람.(삼하9:40)
4. ‘잊어 버리게 하다’는 뜻으로 요셉의 큰아들. (창세기41:51)
6. 다윗의 누이 아비가일의 아들, 압살롬이 그를 요압 대신으로 반군의 장관으로 삼았다. (사무엘하17:25)
9. 욥의 친구로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욥기22:29) 충고.
10. 헤롯 안디바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눅 8:3).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여 무덤을 찾아간 여인중의 하나.
13. 요나 선지자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곳으로 도망 가려고 배를 탔. (요나1:3)
14. 시편에 71회, 하박국에 3회 나오는 음악용어로 ‘높임’, ‘중지’라는 의미의 ‘실랄’이란 단어에서 유래된 음악적인 지시어.

■ 지난호 정답 ■

오	네	시	모		수		
		므		갈	라	디	아
		스	이	라	구		히
			마	레	사		마
수	아		나		아		아
	그	리	웃		라	기	스
	립				우		
우	바	스		아	나	하	랏

■ 지난달 당첨자 ■

고은혜, 강은정, 이선영 님 (축하드립니다!)

메일로 정답과 상품을 받으실 휴대폰 번호를 적어 응모하세요.
3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odsk@opendoors.or.kr (2018년 7월 10일까지)

지역별로 진행되는 오픈도어 지역 모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픈도어 지역 모임

- 후원자, 300 기도용사, 300 후원이사 등 누구나 관심을 가진 분들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역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이벤트 및 공지사항' 으로 접속하시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02)596-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opendoors.or.kr

오픈도어가 새로운 사무실을 찾고 있습니다.

주위 좋은 공간을 알고 있는 분이나,
무상으로 사무실을 제공해 주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 : 02)596-3171
메일 : odsk@opendoors.or.kr

2018, 시리아에 희망을

2018년 현재,
총 1,310만 명의 시리아인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시리아 안팎에서 총 580만 명의 어린이가
우리의 도움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1,310 만 명이

우리의 도움을 절실하게 기다립니다

서울시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전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10 만 명이

국내실향민이 되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 시민 전체가 한꺼번에 집을 잃고 국내에서 떠도는 것과 같습니다

298 만 명의 난민이

포위되어 도움의 손길이 닿지 못합니다

바르셀로나 시민 전체가 포위되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580 만 명의 어린이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싱가폴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수의 어린이가 난민이 되었습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구호, 교육 및 훈련에 사용됩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63-099071-02-101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9길 10, 영성빌딩 4층

전화번호: 02-596-3171 팩스번호: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2018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길 바라며...

성경 훈련	선물 1	아프리카의 박해 국가 어린이들에게 성경 전달	×	5,000원	=	원
	선물 2	시리아의 제자훈련 프로그램	×	70,000원	=	원
	선물 3	중동의 목회자 훈련 사역	×	150,000원	=	원
생존	선물 4	위험에 처한 무슬림 성도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5	탈북자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50,000원	=	원
	선물 6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상담 사역	×	80,000원	=	원
여성	선물 7	박해 최전선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영육간의 돌봄 제공	×	30,000원	=	원
	선물 8	무슬림 국가에서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80,000원	=	원
어린이	선물 9	중앙아시아의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 신앙 교육	×	20,000원	=	원
	선물 10	박해 최상위 10개 국가 어린이들에게 기독교서적 전달	×	10,000원	=	원
난민	선물 11	중동의 크리스천 난민들에게 대피소와 구호품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12	한 사람의 난민의 훈련과 의료적 돌봄	×	40,000원	=	원
총 계					=	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www.opendoors.or.kr

참여안내 보내주신 헌금은 후원자분들의 뜻에 따라 각 선교지에 보내어집니다.

1. 전달하려는 선물에 표시하고 총 선물 금액을 계산합니다.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캠페인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전화 (02-596-3171) 또는 이메일 (odsk@opendoors.or.kr)로 선물 신청 내역을 알려주세요.



한국 오픈도어